

임상증례보고

(Case presentation)

매일매일의 임상에서 어떠한 치료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는 일이란 없을 것이다. 근관 확대, 보철물의 설계, 의치의 조정 등등, 생각해 보면 작은 결단의 연속이며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의 피로감도 거의가 이러한 망설임의 축적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기 혼자서 고민하다가 불확실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보기 위하여 어느 모임에 참석하여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어 보지만, 서로간의 진료내용이나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Discussion도 불가능한 경우를 느끼기도 한다. 적어도 어느 Group 사이에서 만이라도 통용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하고 생각도 해 본다.

임상에 접하고부터 당분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쫓아가기에 급급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들이 소화가능하게 되면서 특히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되고 기술상의 발전뿐 아니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어느 한가지의 목표에 낙착되어 버리던지 기타 새로운 문제가 발견될 때 그 목표를 향하여

변신해 가던지, 어느 쪽이던 임상에 있어서는 우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환자에게 잘 표현(치료)하느냐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중에 치과의사로서의 생각이 형성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고도화된 지식과 기술을 향하여 진전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다른 또 많은 경우에는 직업이외의 여러가지 경험과 더불어 타인의 기본을 이해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취사선택으로 안주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기술의 정확함은 물론 중요하지만, 개개의 치료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환자의 고민을 이해하고 적절한 진단을 기본으로하여 슬러의 After care를 포함하여 시행된 치료가 충분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소의 치료로서 필요한 치료효과를 얻는 것이 의료의 원점이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방법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지식과 기술의 연마를 게을리 하게 되고 한가지의 방법을 모든 환자에게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치과임상에 있어서는 손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으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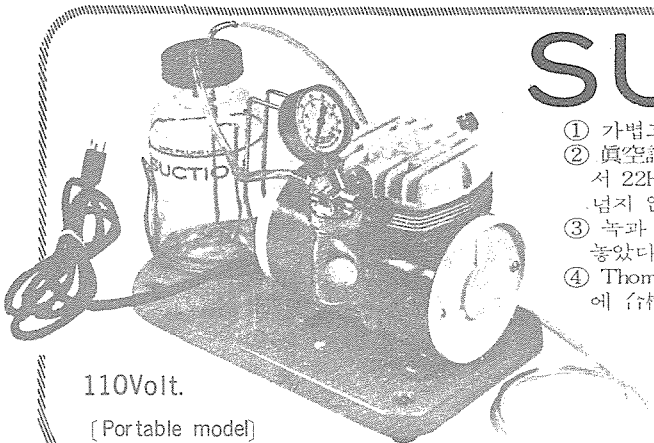
도 손은 필요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임상의 Start로서의 손의 훈련은 나중에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치과임상에 대한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자의 호소증에는 고통이나 불쾌감등 실제의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방법등에 대한 치료내용의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호소를 신중하게 듣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한정된 개인의 체험이나 불확실한 정보에 기인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호소의 어떤 존재하는 것을 읽어서 치료의 레도수정을 하는 것이 치료의 제1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말에 동조하거나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자세에는 기본적인 기술의 확실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생각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많은 환자와의 사이에서 만족, 불만족등 여러가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치과의료도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첫째이며, 지식이나 기술은 그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게도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인간관계는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보통의 대등한 인간관

계와는 다르다. 형성된 신뢰관계에 치과의사가 만족하여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지식과 기술언마를 등한히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신뢰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엄하게 자기자신에 대한 체적질만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어 곤란하겠지만, 안이한 생각으로 치료에 임해서도 안되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치과의사 협회지의 지상진보실란에 임상증례보고라는 제목으로 증례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경험이기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많은 비판이 있으리라는 각오와 그로 인한 제 자신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환자의 몇가지 Case에 접하는 한방법으로서 후시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상증례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110Volt.
[Portable model]

SUCTION

- ① 가볍고 移動하기 쉬우며 기름칠을 할 必要가 없다.
- ② 眞空計를 읽기 쉬우며 調節손잡이로 眞空度를 0에서 22Hg까지 쉽게 調節할 수 있으며 排泄物이 흘러 넘지 않게 安全트랩이 달려 있다.
- ③ 녹과 腐蝕을 防止하기 위하여 Alcorite 皮膜을 입혀 놓았다.
- ④ Thomas社가 만든 本 Suction은 醫療機器標準(規格)에 合格한 精巧한 製品이다.

眞元洋行

서울·鐘路區 鐘路3街157 (영광빌딩 505호)
C. P. O. Box 501 ☎ 274-4465